

제21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

■ 일시	2021년 5월 13일(목) 13:00	■ 장소	하이서울유스호스텔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

■ 기념행사

- 노동의례

■ 본회의

-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
 - ▶ 재적대의원 77명, 참석대의원 51명, 불참대의원 26명
- 개회사
-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
 - ▶ 서기 : 교선국장
 - ▶ 감표위원 : 중앙선거관리위원
- 회순통과
 - ▶ 안건 추가 : 전력산업구조개편 대응의 건
 - ▶ 안건 삭제 : 임원 선출의 건

[심의안건1] 제20년차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승인의 건

- 교대근무형태 변경 관련 본부별 공유
- 해고동지 활동보고 요구
- 복지기금 캠퍼가 관련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 요구
- 통상임금소송 성공보수 및 특별조합비 미납자 관련 납부 방안 마련 요구
- 원안 통과

[심의안건2]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(투표)

- 민주노총
최용우(위원장, 남부발전본부), 제용순(부위원장, 남부발전본부),
정희진(여성할당, 남동발전본부), 박정규(후보, 부위원장, 남동발전본부)
- 공공운수노조
최재순(부위원장, 동서발전본부), 유승현(부위원장, 서부발전본부)
최대봉(도서전력지부장), 박정규(부위원장, 남동발전본부)

남윤철(후보, 사무처장, 중부발전본부)

[심의안건3]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(투표)

○ 단체교섭위원 : 위원장, 사무처장 부위원장 5명

[심의안건4]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

○ 양승용(도서전력지부, 비양도) 인준

[심의안건5] 경미한 규약 개정의 건(투표)

○ 신설지부 추가 후 수정통과

○ 규약 개정 내용

규약 제4조

현행	개정(안)
제4조(소속)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.	제4조(소속)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산 회서비스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.

규약 부칙 제4조 경과조치 ⑧항

현행	개정(안)
⑧ 규약 제정 당시의 본부, 지부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재편한다. -----이하 생략-----	⑧ 규약 제정 당시의 본부, 지부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재편한다. -----이하 요약----- 삭제 : <u>무주양수지부(남동), 양양양수지부(중부), 삼랑진양수지부, 청송양수지부(서부), 영남화력지부, 청평양수지부(남부), 산청양수지부(동서)</u> 신설 : <u>고성하이지부(남동), 신보령지부, 세종지부(중부), 안동지부, 삼척지부(남부), 한산발전본부, 도서전력지부, 한국발전인재개발원지부, EWP서비스지부(직할 본부 및 지부)</u> 명칭변경 : <u>OO화력/복합화력지부 → OO지부</u>

[심의안건6] 임금피크제 적용의 건(투표)

- 수정안 : 임금피크제 적용률 80%를 적용한다
 - ▶ 부결 : 선거인명부인원(77), 불참인원(25), 투표인원(49), 찬성(24), 반대(25), 기권(3)
- 원안 : 임금피크제 적용률 62.5%를 적용한다
 - ▶ 가결 : 선거인명부인원(77), 불참인원(25), 투표인원(48), 찬성(31), 반대(17), 기권(4)

[심의안건7] 조합비 운영의 건(투표)

- 6월부터 조합비는 1%로 인하한다.
 - ▶ 가결 : 선거인명부인원(77), 불참인원(25), 투표인원(49), 찬성(46), 반대(3), 기권(3)
- 조합비 1% 중 희생자구제기금 20%, 투쟁기금 적립금 2%로 적립금을 조정한다
 - ▶ 가결 : 선거인명부인원(77), 불참인원(25), 투표인원(49), 찬성(31), 반대(17), 기권(3)

[심의안건8] 제21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의 건

- 중부발전본부 21년차 사업계획 반려 및 재 제출 요청
- 일반회계 잉여금 ₩137,005,705원 중 ₩40,000,000원은 재정자립기금, ₩10,290,000원은 공공운수노조 특별조합비(조합원 1인당 ₩10,000원 중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50%, 지부 거출을 통해 50% 납부. 지부 거출은 조합비 배분 시 공제. 시기 및 방법은 추후 공문 등을 통해 구체화), ₩86,718,705원은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하고, 예산(안) 수정
- 의견 및 요구 반영 수정 통과

[심의안건9] 전력산업구조개편 대응의 건

- 그동안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대응 및 기후위기, 정의로운 에너지전환, 전기사업법 개정 대응 등 공유
-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발전노동자의 문제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대응한다.

[기타토의]

- 없음

■ 폐회